

# 석유제품 수출도 100억달러 돌파

석유협회, 1-9월 105억7000만달러 달해 ... 9월 수출단가 70.7달러

2005년 1-9월 석유제품 수출액이 1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2004년 수준을 돌파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2005년 1-9월 석유제품 수출액은 105억7000만달러로 2004년 101억7000만달러를 넘어섰다.

1-9월 수출액은 2004년 1-9월 68억8700만달러에 비해 54% 증가했다.

9월 석유제품 수출액도 2005년 들어 최고치인 16억8000만달러로 반도체(25억9900만달러)와 무선통신기기(24억8400만달러)에 이어 수출품목 중 3번째로 높았다.

9월 석유제품 수출단가는 배럴당 70.7달러로 2005년 초 44.8달러에 비해 58% 급등했다.

또 중국, 인디아의 경제성장과 허리케인 등에 따른 석유 생산 차질로 국제 석유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도 수출금액 증가요인으로 지적된다.

석유협회는 “석유제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유가에 따른 정제마진 개선으로 수출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화학저널 2005/10/21>